

지나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20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순조롭게 하소서 - 북한 땅으로 회복을 확산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6.23(목) 오전10시 공촌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갈라디아서)

- ① 일 시 : 6.21(화)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 회비없음)

3. 제 5회 영파플 집회

- ① 일 시 : 7.29(금) ~31(주일)
- ② 장 소 : 춘천 아름다운 세상
- ③ 대 상 :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봉사자, 학부모, 다음세대 관심있는 모든 지체들
- ④ 회 비 : 중고등부, 대학생 30,000원 어른 70,000원
- ⑤ 신 청 : 6.26(주일)까지 각 지역 중고등부 봉사자

《기타 사항》

1.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6년 봄 장로 춘련 메시지3

◆ 지나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6.06.(월) ~ 2016.06.12(주일))

지역	1지역 (73명)					2지역 (97명)					3지역 (105명)					4지역 (113명)					5지역 (94명)					6지역 (53명)					7지역 (23명)					계				
그 룹	학 과	인 신	청 년 1	청 년 2	청 년 대	간 석	구 월	만 수	장 수	노 년	주 안	연 수	동 촌	청 화	송 도	신 화	가 자	석 남	신 경	연 희	청 화 2	영 라 2	검 암	당 하	검 암	삼 산	부 평	청 천	산 곡	효 성	작 전	계 산	임 학	중 산	운 남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요상	20	13	18	11	6	5	15	16	13	13	10	3	21	6	20	16	21	31	17	18	7	8	11	16	9	10	10	13	11	26	26	20	22	13	12	15	13	11	12	558
기 도	3	4	6				2	6	13	5	2	1	8					8	5	3	2	8	3	6	5	2	2	5	10	11	8	5	6	2	3		4		148	
그 룹	6	8	6	10	8	2	1	8	7	4	1		9				8	7	2	4	11	1	7	5	6													157		
아침부흥	9	8	8	7		3											8	5						2		10	23	16	13	11	7		6	4	5			145		
어린이	11					19					13					23					11					7					6					90				
아빠와아빠											11					5															3					19				
중고등부	8					2					10					13					12					9					6					60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6. 19. 16-25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2016년 봄 장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3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안에서 하나님을 섬김

롬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수고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이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주하며, 그들의 상황과 환경 속의 모든 것들로 인해 유익을 받으며, 타인을 향해 최고의 태도를 갖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들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한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분명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그분의 신성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불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신성한 요구도 충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요구를 이룰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요소를 분배받지 않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 할 수 없다. 신성한 본질이 우리 존재 안에 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족시키며, 그분께 참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경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그분께 경배 할 수 있다.

로마서 1장 9절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경배하여 섬기다'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도 사용된다. 바울은 그의 복음전파를 다만 하나의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롬1:9 각주2).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하려 할 때, 우리는 순수한 양심, 즉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정결하게 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영에 의해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분의 피는 우리가 살게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히9:14).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을 요구한다. 죽은 종교 안에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은 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양심은 우리 영에서 인도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섬기기를 갈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에 오신다(요 4:24).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다.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은 우리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면, 우리는 복음전파를 위해 우리의 영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신약의 봉사와 경배는 복음을 전파할 때 수행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것과도 관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신약에서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이 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상 로마서의 주제이다. 이 책 바로 첫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와 부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의도가 복음에 대하여 쓰려는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 즉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완전하게 밝혀준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쓴 그의 서신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2장 16절에서 그는 "이런 일은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에 따라 성도들을 세우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롬 6:25) 그러므로 로마서는 다섯

번째 복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영안에서 섬겨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구속과 생명과 몸을 포함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접촉할 때마다 그가 구속을 체험했는지의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아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가 몸을 아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 사람이 몸을 알며 우리보다 더 몸의 체험이 많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에게 복종시켜서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영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길이다.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죄 많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신다(롬 8:29). 그러므로 복음의 중점은 죄들의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인들을 영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모두는 이것을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받거나 죄들을 용서받거나 영적이 되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한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경배를 언급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그녀의 영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영으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다(요 4:24 차주3).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사를 세우시고 선택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신12:5, 11, 13-14, 18), 제물이 있어야 한다(레1-6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위해 선택하신 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인 사람의 영을 예표한다(렐 2:22).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 할 때 드리는 모든 제물들의 성취요, 실체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진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를 위하여, 신성한 실체가 사람에게 참됨이 되고 성실함(이것은 부도덕한 사마리아인 경배자의 위선과 반대된다—요 4:16-18.)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신성한 실체는 실제(요 14:6)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체이시고(1:29, 3:14), 믿는 이들이 참여하고 마신 생수의 원천, 곧 생명주시는 영(4:7-15)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실체는 결국 믿는 이들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전파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회개하러 왔을 때, 그는 즉시 그들을 물속에 넣어서 침례 줌으로 그들을 장사지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롬7:18) 육체에서 난 사람들이며 오직 죽고 장사지내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마도 사람들은 요한에게 회개한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은 그들을 물속에 넣어 장사지냈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었음을 가리킨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요한에게 나와와 그러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육체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을 조금도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된다. 특별히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육체 안에 있는 타고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무데도 쓸모없고 오직 죽고 장사지내는 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침례의 물속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끝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근거에 관한 내재적인 의미이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한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건조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맥락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1-58절).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전 15:10)라는 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사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도 안에서 운행하는 은혜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주는 영이 되시어, 바울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이 되셨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 할 수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주님의 생명력 있는 모든 종들 안에는 바로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다. 우리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간중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격려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헛되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격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오늘의 양식에서 발췌>

주님의 현재의 회복의 이상을 보고 실행함

막16: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은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의 현재의 회복을 실행함

당신은 당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당신은 별로 늙거나 살아 있거나 고무적이지 않은 지방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른다. 사람들의 집의 문을 두드리러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어떤 사람들은 문 두드리러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도 같은 질병을 알아 왔으므로 병든 모든 사람을 동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인내해야 한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침체된 영을 분발시켜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부담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일을 일 년 내내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격언을 믿는다.

우리는 주님의 현재의 회복, 그분의 새 길을 실행해야 하지만, 너무 서두르거나 가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도들을 인내해야 하고 그들을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사람으로 각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고 어떤 종류의 분열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 (행20:18) 라고 말했다. 그는 삼 년 동안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드릴 재물들과 주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여가를 주님의 권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만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기쁨과 쾌락과 오락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실상 가장 좋은 오락은 교회생활이다. 우리 가운데 한 형제가 빵 굽는 일을 했던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침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빵집에서 일했지만, 거의 매일 그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했던 첫 번째 일은 주님을 위해 나가서 사람들을 방문한 것이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고하든지 간에 그것은 게으른 것보다는 훨씬 낫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정 집회와 소그룹 집회와 교회 집회들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실행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길은 수고가 가득한 길이지만 기쁨도 가득한 길이다. 우리가 이 길을 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도 크게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의하면, 나는 우리를 위해 적극적인 길 안에서 전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로 성도들이 새 길을 완전히 인식하도록 점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성급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나는 새 길이 다음과 같은 단계들, 즉 1) 남기 위한 복음 전파, 2) 양육을 위한 가정 집회들, 3) 가르치기 위한 소그룹 집회들, 4) 건축을 위한 교회 집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다.

이제 우리가 옛 길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 길을 취해야 한다. 소그룹

집회 후에 우리는 교회 집회나 약 오십 명의 성도들로 이뤄진 지역 집회가 필요하다. 가끔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 교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특별 집회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가정 집회, 소그룹 집회, 교회 집회를 하는 이러한 길은 과학적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자 성경적인 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얻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들을 낳기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소중히 품기 위해 계속해서 방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보존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과거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집회에서 말하라고 격려했지만, 이것을 하라고 그들을 합당하게 가르치지는 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새 사람들을 합당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말하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새 길을 실행하면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지 않는 다른 곳을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마다 어느 정도 그 지방의 상황에 따라 새 길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나는 또한 각처에 있는 인도하는 이들에게 어떤 성도도 제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나의 사랑의 말이다. 장로는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러 나갈 때 자기에게 와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장로들은 교회를 좋은 질서에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을 이런 방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가 그들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심지어 죄악 되가까지 한 오락을 즐기려고 그들 자신을 훈련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생의 최고의 오락은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딤후 전 4:7)하기 위한 가장 좋은 곳이다. 교회 집회에 가서 앉아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은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하는 것은 먼저 많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러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더 누리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의 영적 음식이신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식욕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더 훈련할수록 우리의 식욕은 더 커질 것이다.

주님의 현재의 회복의 이상을 보고 실행함

과거에 했던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주님은 밝고 전통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방식을 버리기 원하신다. 그분은 새로운 길에서 그분의 회복을 위해 땀기를 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현재의 회복의 조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낙오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밝음 속에 자만하면서 머물 것이다. 주님의 현재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전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바뀔 때 주님의 현재의 회복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일단 시대가 바뀌면, 주님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는 뒤처져서 낙오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현재의 회복의 이상을 보고 실행해야 한다. 매주 매달 우리는 땀가를 체험하고 배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이러한 실행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 것임을 믿는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